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용서, 사랑, 평안, 감사

[골 3:13] 누가 누게 혐의비난할 일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그리스도)(전통본문)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자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마 18:15-17).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 잘못은 잘못이고 악은 악이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이런 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많은 죄와 부족을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형제의 작은 죄에 대해 더 잘 용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8:21-35에서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비유로 말씀해주셨다. 그 비유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고, 우리에게 잘못된 형제의 죄는 1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1만 달란트와 1백 데나리온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므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한 데나리온을 약 10만원으로만 보아도, 1만 달란트는 약 6

조원 가량이며, 거기에 비해 1백 데나리온은 약 1,0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6조원과 1,000만원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이다.

지옥 갈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우리 동료의 잘못들을 용서하는 것과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자의 잘못을 한두 번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마 18:22) 용서해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용서는 사랑의 첫걸음이고 또 참된 사랑의 기초이다. 용서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이 많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웃을 위한 용서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증거된 대로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뜻이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단지 봉사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참 중요하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활 규칙인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하셨다(마 22:37-40).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는 우리의 생활 지침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표현하셨다(요 13:34). 사도 바울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였다(롬 13:8-10).

본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한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원어는 ‘완전함의 띠’(KJV)라는 뜻이다. 사랑이 완전함의 띠라는 말은, 사랑 자체가 완전한 덕이라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사랑을 통해 완전한 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용서로 표현되는 사랑만이 교회가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였다(벧전 4:8).

[15절] 그리스도의(하나님의(전통사본) 평강(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1:28),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다(요 14:27). 사도 바울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살후 3:16).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즉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6-7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교훈하였다.

개인의 마음의 평안은 또한 서로간의 화평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서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이며 또 우리는 사랑과 화목함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이 혼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린도후서 6:14-16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을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했다. 특히, 요한계시록 18:2는 말세에 나타날 바벨론 곧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 즉 혼합주의적 세계일 것을 예언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랑이나 교회의 하나 됨의 이름 아래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종교까지도 포용하려는 움직임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미혹의 영인 사탄의 일인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됨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를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고(사 43:7, 21), 또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다(엡 1:6, 12, 14).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20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만한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의 잘못을, 만일 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몇 번이든지 용서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이며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를 완전함으로 묶는 띠이다. 참된 교회와 미래의 천국의 모습은 사랑의 교제이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해야 하고 또 서로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안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다. 그것은 실상

몸의 건강과 경제의 안정과 환경적 평안까지도 포함한다. 또 평안을 소유한 자는 서로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

[계 14:1-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다.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시온산은 천국이다. 히브리서 12:22,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사도 요한은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것도 보았다. 이 14만 4천명의 성도들은 7장에 증거된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며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소속과 소유권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사신 자들이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도 들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고 거문고 타는 자들의 거문고 타는 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14만 4천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이었다. 참된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찬송을 부를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명의 성도들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이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며 불렀던 노래들, 민요든지 유행가든지, 그것들은 다 옛 노래들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심지어 죄악되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래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 부르기를 원치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증거하는 노래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시편 98: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셨도다.”

[4-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처녀들이다.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救贖)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도 요한이 본 14만 4천명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다(롬 8:23; 약 1:18).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택하신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셨다. 그들은 첫 열매들과 같다. 성도들의 구원이 충만히 성취되면,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며 새로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본문은 구속(救贖)받은 성도들의 특징들을 묘사한다. 첫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정절이 있는 자들, 처녀들이라고 표현된다. 여자들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다(약 4:4).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흠 없는 자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엡 1: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었다(엡 5:26-27).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죄악되고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런 세상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와 같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서(전통본문)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하였다(고후 11:2-3). 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권면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교리, 모든 잘못된 행위와 풍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경배하며 또 오직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믿고 그를 따르며 섬기고 그 성경의 교훈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원문).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그의 말씀과 명령이 성경에 있으므로 성경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목사의 성경적 교훈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태도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명령이 보이는 대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다. 그러나 주를 따라가는 것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길은 아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에는 때때로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가시는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따라가야 한다.

셋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즉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말은 마귀의 죄악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다. 거짓은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고, 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다(계 21:8, 27; 22:15).

천국에서 어린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 14만 4천명의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갔으며 거짓이 없는 자들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자들인가?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14만 4천명의 성도들은 어린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십자가 속죄사역을 믿는 것이다. 속죄신앙이 구원 신앙이다. 여러분에게는 이 속죄신앙이 있는가?

둘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명은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곧 세상의 죄와 쾌락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며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눅 9:23).

넷째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며 지옥 갈 죄악이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속 13:1-9]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邪鬼)[영]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날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異像)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은 그에게 물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이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 . .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미 깨끗이 씻음 받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씻음 받아야 한다. 성도의 삶은 의롭고 정결한 삶이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교리 사상과 종교적, 도덕적 행위들에 거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성경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딤후 3:16-17).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교회와 순결한 성도들을 원하신다. 우리는 순결한 교리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하며 순결한 인격이 되어야 하며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는 특히 오늘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배격해야 하고 또 거짓 예언들을 말하며 기적들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남은 자들 중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과 고난과 불 시련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낙망치 말고 남은 자들의 표인 바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지켜야 한다.